

내일부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일 기자회견에서 4일부터 12월말까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히고 있다.

강희만기자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국공립시설 출입 30% 제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의 전국 재확산에 따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주말을 앞둔 4일을 기점으로 12월31일까지 1.5단계로 격상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주관 모임이나 행사에 대해 실내·외에 관계없이 100인 이상에 대한 집합금지가 적용되고,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이 금지된다. 또한 150㎡ 규모의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의무화가 실행되며 중점·일반관리시설별 방역수칙이 추가된다. 아울러 국·공립 시설도 30% 이하 인원만 수용할 수 있다.

다만 도는 도내 중점관리시설 10개소(유형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와 일반관리시설 14개소(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등)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정부의 1.5단계 사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거나 제주의 실정상 적용 힘든 사항은 제외했다.

유흥시설은 흡지기 및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며, 직접판매 홍보관은

150㎡ 규모 식당·카페 등 테이블 1m 거리두기 의무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안해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물과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제한된다. 아울러 일반관리시설 가운데 학원,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실, 오락실·멀티방은 4㎡당 1명 인원 제한이 적용되며, 실내체육시설에서도 물과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 그리고 PC방·영화관·공연장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가 의무화된다.

스포츠 행사는 정부 2단계 수준인 관중 수용 범위 내 10%(정부 1.5단계 30%)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실내 공공 체육시설의 경우 전문체육인과 전지훈련팀, 도내 대회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생활체육을 제외하고 동호인과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회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주도는 정부안(전국 1.5단계, 수도권 2+α)을 일방적으로 준용하기보다는 제주지역 실정을 반영해 소상공인을 비롯해 도내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하고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정부안보다 강화된 지침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제주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5명이다. 지난 11월 22명에 이어 이날 들어서도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는 겨울철 대유행 등 확진자가 대규모 발생하거나 의료기관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팀·의료지원팀·현장지원팀·현장통제팀으로 구성된 즉각 대응팀을 가동한다. 아울러 관광객 등 방문객 대상 방역관리, 타지역 방문 도민 대상 진단검사 지원, 노인 보호 시설 및 요양병원 등 감염병 취약시설 집중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코로나19 긴장속 오늘 사상 첫 12월 수능

2021학년도 수능시험 도내 17개 시험장서 6554명 응시
마스크 착용 필수·책상 전면 칸막이 설치 등 방역 만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코로나19를 뚫고 오늘(3일) 치러진다.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처음으로 12월에 시행되는 것이다.

올해 제주에서는 시험장 17곳(일반 14곳·별도 2곳·병원 1곳)에서 총 6554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응시하며, 감독·방역 인력은 1820명이 투입된다. 코로나19로 시험실 인원이 기존 28명에서 24명으로 제한되면서 시험장은 지난해에 비해 3곳이 늘어난 반면 응시인원은 516명 감소한 것이다.

입실 전에는 각 시험장별로 5명의 방역담당관이 배치돼 수험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 체온측정, 증상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마스크와 가운, 고글, 안면보호구, 일회용 위생장갑 등 방역물품도 구비된다. 책상 전면에는 가로 60cm·세로 45cm의 반투명 아크릴 칸막이가 설치됐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제주대학교병원, 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 2곳(신제주외국어문화학습관·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시험지를 받는다. 현재까지 제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없고, 자가격리 수험생 1명이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수능을 치를 예정이다.

수능은 오전 8시40분부터 1교시 국어영역으로 시작된다. 이어 2교시 수학(오전 10시30분~낮 12시10분), 3교시 영어(오후 1시10분~오후 2시20분), 4교시 한국사 영역 및 사회·과학·직업탐구(오후 2시50분~오후 4시32분),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오후 5시~오후 5시40분) 순으로 진행된다. 영어 듣기평가가 이뤄지는 오후 1시5분부터 35분간은 제주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된다.

수능 당일 시험장 앞 단체 응원 등 집합행위가 금지되며, 관공서·국영

기업체·금융기관·연구기관 등의 출근 시간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된다. 또 오전 6시30분부터 오전 8시10분까지 시내버스가 집중 운영되고, 경찰과 소방 등에서도 비상 수송차량을 지원한다.

수험생은 이날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오전 6시30분부터 가능)에 입실해야 하고, 시험 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에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점심시간에도 본인의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야 한다.

아울러 입실 전 체온 측정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될 경우 별도시험실에서 시험지를 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비롯해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전자사전,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된다.

한편 이석문 교육감은 수능 전날인 2일 제주고와 제주제일고등학교 등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수험생 한 명, 한 명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출구 안보이는 2공항 도민 여론조사 방식

제주도-갈등특위 어제 비공개 면담 불구 입장차 여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관련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문항에 대한 입장차를 좁혀 줄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도의회 제2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활동 기간이 한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은 설문 문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어 올해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가 제대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제주도와 특위는 2일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을 놓고 비공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실무협의에는 원희룡 제주지사도 참석해 여론조사 문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결론적으로 이날 협의에서 양측은 1-3차 실무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설문 문항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재 제주도는 여론조사 과정에서 설문 문항을 단순히 해 제2공항 찬성·반대를 묻는 ‘1개’ 문항만 갖고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갈등해소특위는 ‘찬·반’ 문항 이외에 ‘현 공항 확장 여부’도 도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문항을 추가하자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달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A안은 가능하고 B안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면 도민들은 A안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현 공항 확장 가능성’에 대한 여론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위 활동기간이 이달로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향후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방안으로 채택된 여론조사의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태윤기자

▶▶ 제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역대 최대 5면

힘내세요!

코로나19
이겨낼수 있습니다.

한국마사회 제주본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2021 한라일보 신춘문예
KRA
한국마사회

